

이라크 추가파병 관련

現地調査 結果 報告 資料

2003. 11. 11

2차 政府合同調査團

목 차

1. 개 요

2. 군사 상황

- 가. 전반적 상황
- 나. CJTF-7 동맹군 사령부
- 다. 동맹군 작전 상황
- 라. 민사작전 상황
- 마. 지역별 군사 동향
- 바. 분석 및 평가

3. 치안 상황

- 가. 최근 전반적 상황
- 나. 치안불안 요인
- 다. 최근 치안상황
- 라. 치안불안에 따른 이라크 주재 국제기구 동향
- 마. 우리 기업·공관의 피해 실태
- 바. 지역별 치안 상황
- 사. 치안상황 평가

4. 이라크 통치기구 동향

가. 이라크 통치기구 구성도

나. 미국 및 동맹국 조직 : CJTF-7 및 CPA

다. 이라크 조직 : IGC, 과도내각, 이라크 군·경

5. 재건지원 소요

가. 사회 기반시설 분야

나. 보건·의료 분야

다. 교육·훈련 분야

6. 주요 사안에 대한 면담 인사들의 인식

가. 우리의 추가파병 결정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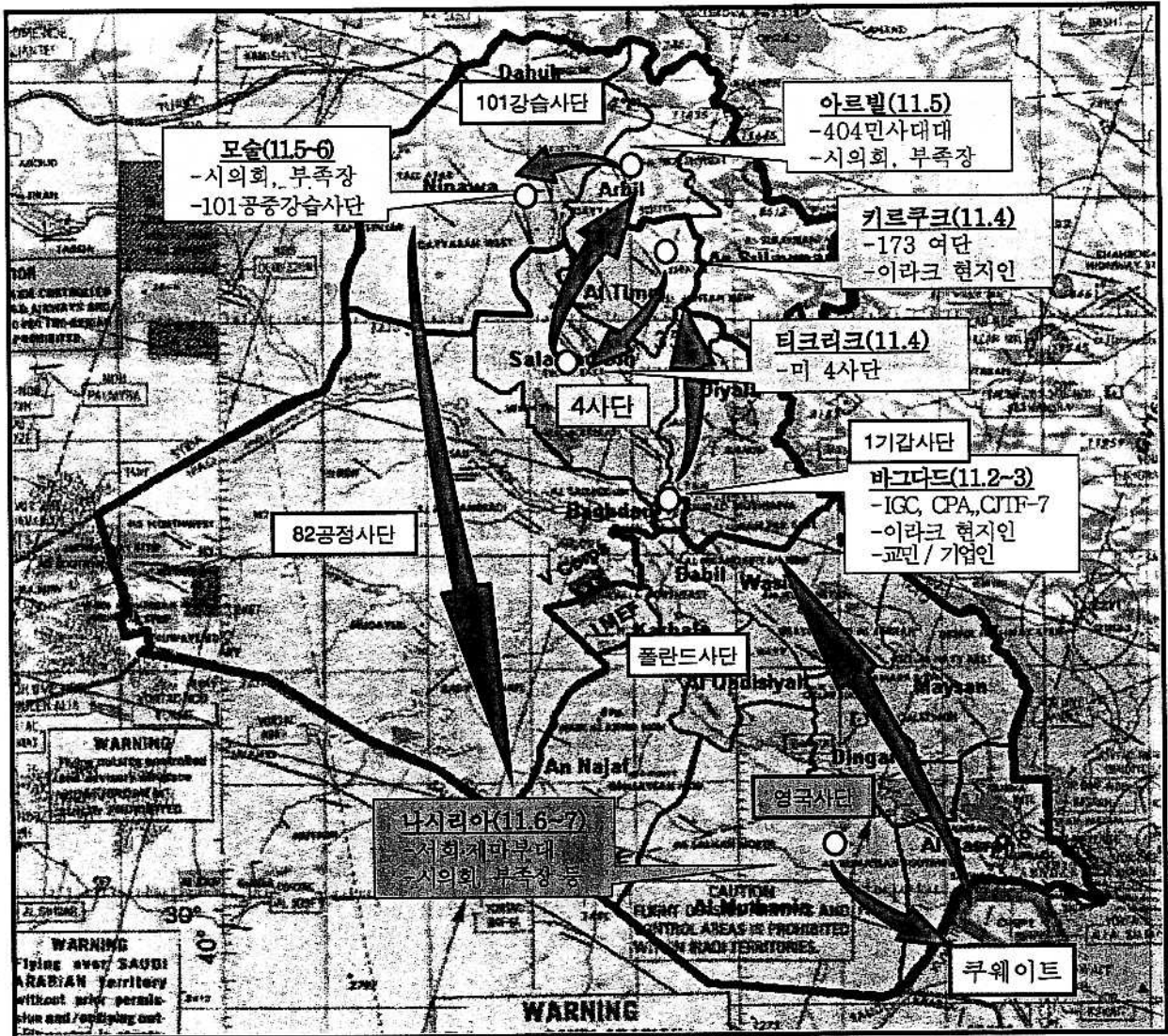
나. 미군 및 다국적군에 대한 정서

다. 과도통치위원회에 대한 태도

라. 거주지역 치안 안전도에 대한 인식

마. 우리의 추가파병 관련 교민 및 진출기업 반응

□ 방문 지역



□ 조사 중점

- ① 현지 정세, 이라크 지도층의 주요 의식
- ② 이라크 통치기구 동향(對미군 감정, 한국군 파병에 대한 의견 등)
- ③ 재건지원 소요 :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훈련, 민심 등
- ④ 군사·민사 작전 상황 : 1차 조사단 조사결과 재확인(국방부)
- ⑤ 지역별 안전성 등

□ 조사의 한계

- ① 미측의 경호와 라마단 기간에 따른 면담인사의 제한
- ② 면담인사가 이라크 일반 국민이 아닌 미측과 연계된 지도층 인사
- ③ 기간중 대규모 미군 사상자 발생(헬기 피습 15명 사망)으로 활동 제약

□ 주요일정

구 분		내 용
10.31(금)	13:05	○ 인천공항 출발, 싱가포르/두바이 경유
11.1(토)	08:20 10:30~17:00 17:00~19:30	○ 쿠웨이트 도착 - 주쿠웨이트 한국대사관 브리핑, 자체회의 - 현지 교민/기업인(3) 접견 ※ 쿠웨이트 1박(민간운영 사피라호텔)
11. 2(일)	10:00~12:00 12:30~13:40 14:00~15:30 15:40~16:00 18:00~20:30	○ 바그다드 이동/방문 - CJTF-7 브리핑 및 질의 응답 - IGC 의원(10월 위원장) 접견 - CPA 비서실장 접견 - 현지 공관원/기업인/주민 접견(10명) ※ 바그다드 시내 1박(팔레스타인호텔)
11. 3(월)	10:00~15:30 13:00~15:00 11:00~16:00	○ 바그다드(2개조 분리활동) <1조> - CJTF-7, CPA 실무자 접촉 및 자료획득 - IGC 11월 의장, 임시내각 통상장관 접견 <2조> - 이라크 현지인사 접견 : 바그다드 대학교수, 후세인 정권당시 국회의장 국제담당 고문, 이라크 국제전략문제 연구소장 ※ 바그다드 시내 1박(팔레스타인호텔)
11. 4(화)	09:00~10:30 10:30~12:00 13:00~15:00 15:00~15:30 15:40~17:00 18:30~19:30	○ 키르쿠크 방문 - 오전 : 미 173 공정여단 브리핑 및 질의 응답 - 오후 : 2개조 분리활동 <1조> - 키르쿠크 시의회, 경찰서 방문 및 접견 (타임 주지사, 부시장, 경찰 간부) <2조> - 173 공정여단 브리핑 및 질의 응답(보충) ○ 티크리트 방문 - 미 4사단 브리핑 및 질의 응답 ※ 티크리트 1박(4사단 사령부 숙소)

구 분		내 용
11. 5(수)	09:00~10:30 10:30~11:30 12:30~13:15 13:30~14:00 14:00~14:30 14:40~16:30 16:35~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빌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4 민사대대(101사단 작전통제) 브리핑 - 현지인사 접견 : 아르빌 부지사, 아르빌 시장, 아르빌 경찰서장 등 14명 ○ 모술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술지역 공중지형정찰 - 현지인사 접견 : 니나와주 부지사, 모술 경찰서장, 경제통상 담당 시의원, 의사 등 지도층 인사 10명 - 101공정사단 방문 브리핑 및 질의응답 <p>※ 모술 1박(101사단 관할 호텔)</p>
11. 6(목)	09:30~10:40 11:00~12:40 13:00~13:30 14:00~16:30 19:0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시리아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희·제마부대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제마병원 시찰 - 현지인사 접견 : 나시리아 시의회 의장, 종교지도자, 부족장 - 조사결과 1차결산 <p>※ 서희부대 1박</p>
11. 7(금)	10:00~11:00 13:00~19:00 2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시리아 출발, 쿠웨이트 이동 ○ 오후 2차 결산 ○ 쿠웨이트 출발
11. 8(토) ~ 9(일)	11.9 0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콕 경유 ○ 인천공항 도착

□ 주요 인사 면담

○ 현지 이라크인

구 분	면 담 인 사
바그다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G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라바니(Talabani) 현 의장 - 자파리(Ibrahim Zafari) 위원(10월 의장) ○ 임시내각 통상장관 ○ 바그다드 대학 정치학 교수(부학장) 에이사(Nadim Aisa), ○ 이라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 알-둘라메(Sadoun Al-Dulame), ○ 전 이라크 국회의장 고문 마하부읍(Isaam Mahaboub)
키르쿠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밈주 주지사 무스타파(Abdulrahman Mustafa) ○ 키루쿠크 부시장 레젠프(Esmail Ahmed Rejeb) 등 10명
아르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빌주 주지사 미타크(Akram Mitak) 등 14명
모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나와주 부지사 고란(Khressro Goran) ○ 모술시 경찰국장 바하위(Mohamed Barhawee) 등 10명
나시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시리아 시의회 의장 이브라힘(Abbaddi Ibrahim) ○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나세리(Ayatollah Mohamed Nasser) ○ 부족장 알 만샤드(Sheikh Ali Al-Manshad)

○ 교포인사 면담

- 교민/기업인 : 황규찬 IT&T사 경영자 등 10명
- NGO : 권혁관 목사(식량분배 활동)

○ 브리핑 청취현황

구 분	부 대
바그다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JTF -7 ○ CPA
키르쿠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 보병사단 ○ 제 173 공정여단
아르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404 민사대대
모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01 공정사단
나시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희 · 제마부대

2. 군사 상황

가. 전반적 상황

- 종전(2003.5.1) 이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등 동맹군에 대한 소규모 공격이 매일 발생함으로써 치안상태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
 - 공격대상은 종전의 미군, 호송차량 등에서 최근 동맹군 기지 및 기지 밖의 미군 지원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
 - 높은 실업률에 따른 사회적 불만으로 강도 등 일반범죄 증가 등의 불안정한 상황 지속 전망

- 인근 아랍국가로부터의 이슬람 과격분자 침투 등 위협세력이 확산되고 공격행위도 정교화, 다양화, 무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추세

- 미군과 동맹군은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군사작전에 추가하여 이라크 재건지원에 주안을 둔 민사작전을 강화
 - 군사작전 : 미군 단독작전 5회, 동맹군 포함 전 부대 작전 2회 실시
 - 미군은 이라크의 안정회복(create a secure environment)을 위해 후세인 잔적 소탕, 테러 및 적대세력 퇴치에 중점을 둔 전투위주 작전을 실시
 - 동맹군은 유류 밀매, 범죄조직 소탕에 중점을 둔 치안유지 위주 작전 및 책임지역내 미군작전 지원
 - 민사작전 : 이라크 안정화 노력·전기·상하수도·의료지원 등 전후복구 지원
 - 이라크군·경찰 및 행정당국으로의 치안질서 유지업무 전환을 위해 신이라크 정부 통치능력 확립, 중앙 및 지방정부 자치능력 배양, 이라크 군경 훈련·육성 → 현재 부분적이거나 치안질서 유지 공동작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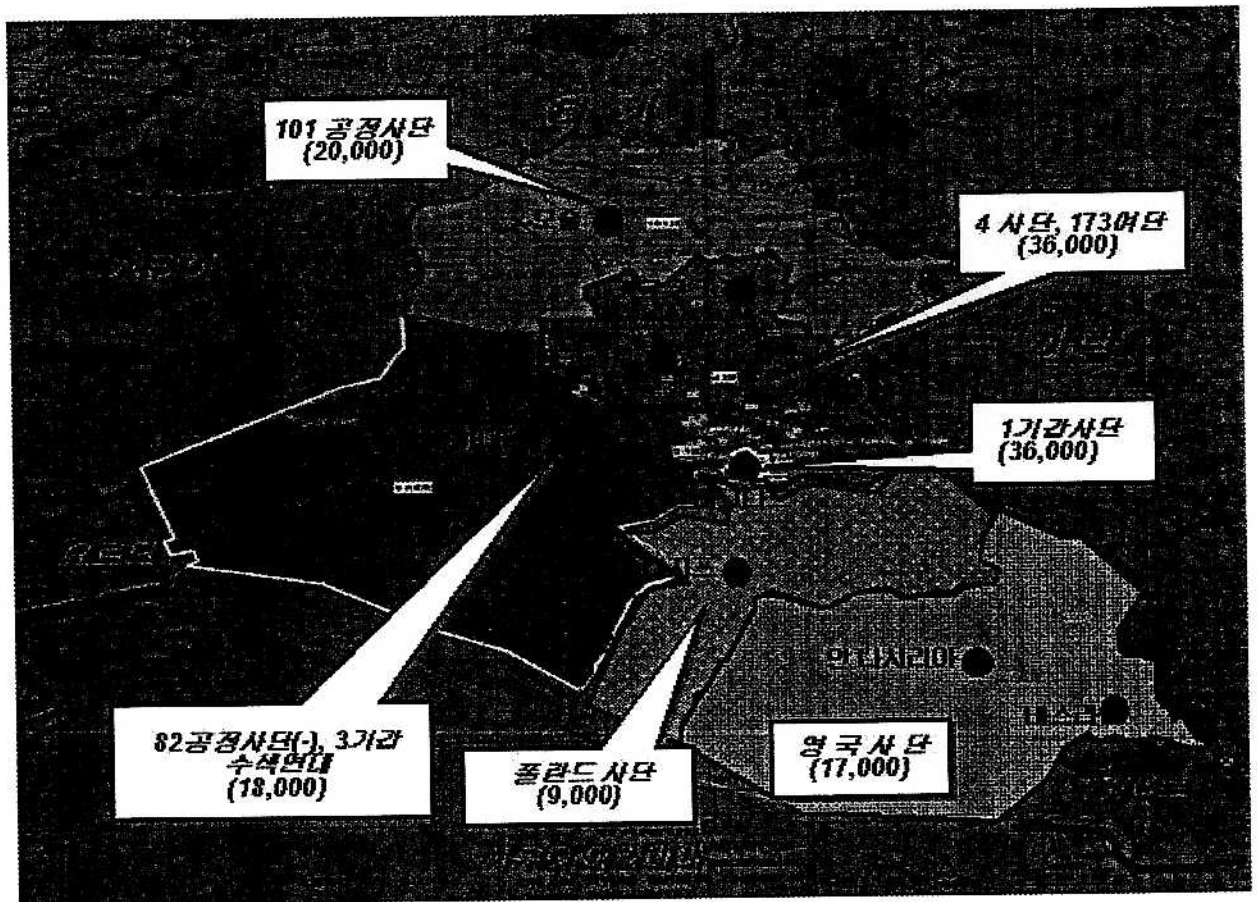
나. CJTF-7 동맹군 사령부

□ 임 무

-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존 위협 제거
- 지정된 군 또는 행정당국으로 작전을 전환하기 위한 상황조성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수립과 경제발전을 지원

□ 동맹군 운용(총병력 37개국 139,000명, 미국 외 동맹군 23,387명)

※ 전쟁 당시 최대병력 : 37만 2천여명



다. 동맹군 작전 상황

□ 현재 진행중인 군사작전

- Power Crude(7.30~계속) : 유류밀매 및 범죄조직 소탕 작전
- Chamberlain(10.1~계속)
 - 구 정권 추종세력 제거, 이라크 전 지역(국경지대 중심)에서 광범위 하게 실시
 - 「합동정찰/표적 공격 레이다 체계」(J-Star)등 정찰장비를 동원하여 해외파 전사들 색출/차단/침투로 파괴

□ 동맹군에 대한 적대행위 실태

○ 일일 적대행위 발생 빈도

구 분	북부지역	중부지역	중남부지역	남동부지역
5~6월	0.3	5.6	0.4	0.2
7~9월	2.0	13.0	0.7	0.4
10~11. 4	2.0	24.2	0.9	0.9

* 10월 이후 중부지역 적대행위 대폭 증가(1일 24회)

○ 10월 이후 적대행위의 76%는 동맹군에 대한 공격행위, 기타 24%

○ 적대행위 패턴의 전술적 변화

- 소화기·RPG·박격포·급조폭발물의 종별 개별 공격 → 여러 수단 혼합공격
- 6월 이후 급조폭발물에 의한 공격 3배정도 증가, 이용방법 정교화

* 6월 23회(적대행위의 12%) → 9월 140회(30%) → 10월 이후 310회(32%)

○ 8월 이후 자살폭탄 테러 6회 발생

* 요르단 대사관(8. 5), 유엔건물 1차(8.19), 나자프시(8.29), 경찰서(9. 4), 유엔건물 2차(9.22), 국제적십자위원회(10.27), 바그다드내 경찰서 4개소(10.27)

라. 민사작전 상황

□ 민사작전 추진단계

○ 既 시행 작전

- 전쟁 초기 대규모 공습단계에서는 민심획득에 주안을 두고 인도적 지원과 이라크 주민 선무활동 실시
- UN 및 동맹군에 의한 지원, 정권과 국민 분리, 민사부대 투입 준비
- 지상군 투입시부터 바그다드 점령간에는 주민통제와 민심획득에 중점을 두고 치안질서 유지, 인도적 지원, 자원통제 및 조사활동 실시
- 이라크 남부지역 민사부대 투입 실질적 운용, 국제기구 및 NGO 협조

○ 현재 추진 중인 작전

- 바그다드 점령 이후 이라크 재건지원에 주안을 두고 인도적 지원, 주요시설 복구 등 전후복구 지원
- 지역별 CMOC(민사작전본부)를 통한 협조 및 재건지원
- 무기반납 유도, 친동맹군 활동 유도를 위한 심리전 실시
- CPA · IGC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현재 軍 주도 안정화 작전(Stabilization)을 민간주도 개혁(Reformation)을 거쳐 新 이라크 정부로 전환(Transition) 예정

□ 민사작전 범위

- 동맹군임시행정처(CPA)의 이라크 복구 활동 지원
- 新이라크군 모집 및 교육훈련
- 유류와 전기 공급여건 향상 및 주요 기간시설 안전 확보
- 사회 기반시설 정상화 활동
- 방송국 개국을 위한 향상 및 주요 기간시설 안전 확보
- 이라크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지원
- 도로보수, 병원/학교 개·보수 및 구호활동 등

□ 민사작전 목표 및 활동

- 목 표 : 동맹군임시행정처(CPA) 활동 지원
- 활 동

구 분	주 요 내 용
치안 질서 유지	·책임지역내 순찰(이라크 경찰과 합동 순찰 점차 증대) ·적대 세력 예상 근거지 수색, 색출 제거 ·국경선 통제 및 주 보급로 안전 보장
민간 단체 활동 지원	·민사작전 본부(CMOC)를 통해 소요파악 및 지원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보건 및 교육활동 지원) ·급수, 전기, 연료 공급(CPA와 협조)
정부 기능 발휘 보장	·과도통치위(IGC), 임시내각 활동 지원 ·경찰, 국경경비대, 시설경비대, 민방위대, 육군 양성지원 ·선거 준비 협조
경제 재건 지원	·동맹군임시행정처(CPA) 활동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용 및 임금 지불 * 지휘관 긴급조치사업(CERP) 범위내 재건 지원

※ CERP(Commander's Emergency Response Projects)

- CJTF-7 : 8,988개 사업에 10,823여만불 배정, 8,140여만 불 사용(11. 5일)
- 지역책임 사단장 50만불, 여단장 20만불
- 민사작전 예산현황(11.5 현재)

(단위 : 만\$)

부 대	계	북 부 (101강습사)	중 부 (4, 1, 82공정사)	중남부 (폴란드사단)	남동부 (영국사단)	기 타
배 정	10,823	3,920	4,922	1,981	47	500
사 용	8,140	2,460	3,830	820	430	600

□ 민사작전 수행 체제

- CJTF-7 : 동맹군임시행정처(CPA)와 상호지원 및 협조
- * 352 민사사령부(4개여단, 9개대대, 1,676명) 작전통제

○ 지역 담당 사단 : 지역 협조단(RCG), 지방재건단(PRT)과 협조

* 미군 사단별 1개 민사여단 지원

* 다국적군 사단은 구성국가별 민사부대 운용

영국 사단	네덜란드(22), 이태리(23), 체코(13), 영국(16)
폴란드 사단	우크라이나(24), 태국(7), 필리핀(7), 헝가리(2), 스페인(51)

○ 지역별 민사작전 성과

구분	북부 (101공정사)	중부 (4,1기갑,82공정사)	중남부 (폴란드사단)	남동부 (영국사단)
치안	정상	제한	정상	정상
민생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경제	보통	보통	보통	보통

- 정상(85% 이상), 보통(84%~70%), 제한(70% 미만)

- 민생은 급수·전기·연료 보급수준을, 경제는 농업·고용수준을 의미

마. 지역별 군사동향

□ 북부지역 : 美 101 공정사단

○ 책임지역내 수색정찰, 민사작전, 新이라크군 교육훈련 지속

○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동맹군에 대한 공격은 지속적으로 발생, 10월 이후 적대행위 67회(1일 평균 : 6월 이전 0.3회→ 2.0회)

* 적대행위 시간대 : 16:00~익일 04:00

* 적대행위 목표 : 순찰/호송차량, 기지, 기반시설, 곡물창고 등 다양

○ 술라마니아 및 국경지역에서의 이란의 영향력 지속

* 이란계 조직이 동맹군 위협세력들의 국경지역 통과 지원

○ 민사작전 : TF-Neighborhood 구성, 주민지원 활동 강화

* 식량·의료지원, 도로보수, 동상철거, 도로차선 정비, 종묘분배, 환경개선 등

□ 중북부지역 : 미 제4보병사단

- 이라크 북부 중앙지역 티크리트 일대를 담당하며, 사단 책임지역내 정찰 및 순찰, 적대세력 색출, 국경지대 감시활동 등 전개
- 10월 이후 적대행위 358회로 이라크내 적대행위 최다 발생
 - * 10.25 티크리트 상공에서 정찰중인 UH-60 1대에 RPG 공격(헬기 불시착 및 전소, 조종사 부상, 11.6 티크리트 헬기 추락으로 6명 사망)
- 민사작전
 - 키르쿠크 지역 지하수 개발 및 수로관리 공사 진행
 - * 공사 완료시 1일 10만 갤런 공급, 지역 급수의 50% 충족 예상
 - 정부 고시가로 유류를 판매토록 시장 단속 강화
 - 지자체와 거리 청소, 쓰레기 하치장, 고철 수집소 운영 등 협의

□ 중서부지역 : 미 82공정 사단

- 10월 이후 적대행위 249회로 증가 추세
 - * 10.25일, 바그다드 외곽에서 순찰 중인 미군차량에 미상 30여명이 RPG 및 소화기 공격 후 도주(미군 2명 부상, 적대세력 2명 사살)
- 동맹군 기지나 순찰차량에 제한적인 공격, 급조폭발물 사용 증가 추세

□ 바그다드지역 : 미 1기갑사단

- 미군 호텔에 로켓 공격 등 적대행위 빈번
- 10월 이후 적대행위 215회 발생(1일평균 : 6월 이전 4회→6.5회)
 - * 병력수송 중인 C-130에 RPG 공격, 15명 사망(11.2)
 - * 순찰중인 전차에 급조폭발물 공격(10.25), 야간 순찰팀에 급조폭발물 공격(10.26), 알라 시드 호텔에 로켓 29~40발 공격(10.26),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경찰서 4곳 공격(10.27)
- 적대세력 색출 위해 터키 등 외국대사관 주변 수색정찰 강화
- CJTF-7사령부에 RPG 공격 첩보 입수, 공격헬기로 사전 적 공격 무력화
- 민사작전
 - 라마단 경축 홍보물 게시, 신문/방송 메시지 전달 등 주민우호 활동
 - 바그다드 시내 전 교사 전력 확인, 구 바트당 연고 교사 전원 해고

□ 중남부 지역 : 폴란드 다국적사단

-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이란-이라크 국경지역에 대한 검문 검색활동
- 10월 이후 적대행위 34회(1일평균 : 6월 이전 0.3회→1회)
 - * 카발라 지역에서 시아파내 종교파별간 교전으로 체포된 인원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10.23)
 - * AK-47 소총으로 이동중인 폴란드 헬기 공격
- 민사작전 : 식량분배, 급수망 및 전기공급 준비 등

□ 남부 지역 : 영국 다국적사단

- 대체로 안정된 상태 지속, 해상을 통한 밀수통제 작전 및 이란 국경선 통제작전 실시 중
- 10월 이후 적대행위 32회 발생(1일평균 : 6월 이전 0.3회→0.9회)
 - * 바스라에서 CPA 요원 호송차량에 급조폭발물 공격 1명 부상(10.22)
- 민사작전 : 급수관리 및 지역발전 지원계획 수립, 시행 중

바. 분석 및 평가

□ 동맹군 작전

- 전반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나, 후세인 정권 추종세력 및 反동맹군 적대행위 지속에 따라 치안유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
 - ⇒ 북부 및 서부지역을 담당할 다국적 사단(2개)을 동맹군으로 교체 희망
- 적대세력 색출 및 소탕작전은 미군담당, 국경선 통제와 주요시설·보급로 경계임무는 양성중인 이라크 국경수비대·육군·경찰·민방위군이 인수중
- 종전 이후 적대행위의 84%가 발생하는 수니 삼각지대 일대를 중점적으로 소탕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작전결과와 무관하게 10월 이후 적대행위는 대폭 증가
 - * 작전성과 : 바트당 사살(30명), 체포 1,570명(전체의 40%), 포탄/무기류 획득→총기류 1,261정, 포탄/수류탄 1,261발, RPG-7 1,633정, RKT 100정 등
- 적대행위의 조직화, 정교화 및 상징적 목표물에 대한 대량피해 유발로 미군에 대한 협조 및 대외지원 차단 시도

□ 민사작전

- 민사작전은 안정화 작전 성공의 중요 요인으로서, 치안질서는 중부는 제한이나 기타 지역은 정상, 민생관련 수준은 쏘지역 제한, 경제수준은 쏘지역 보통이나 점차 향상되고 있는 상태
- 지역별 CPA 자금 배정은 민사여단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군사단에 집중
- 다국적군 민사부대 편성 및 운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배정된 자금의 사용도 제한

3. 치안 상황

가. 최근 전반적 상황

- 후세인 잔당, 종교적 과격세력 및 해외 이슬람 테러조직들이 미군 대상 중심의 동맹군에 대해 공격행위를 증가
- 공격대상도 종전에는 미군 및 관련 시설물이 주대상이었으나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 미국협조 이라크인·경찰서·호텔 등 연성 목표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확산
 - * 남부 아마라시 「알 아베」 경찰서장(10.24) 및 바그다드 「알 아쌈」 부시장 암살(10.26), 바그다드 알라시드호텔 피격(10.26, 미군 1명 사망·18명 부상) 등
- 공격 수단은 휴대용 로켓(RPG), 박격포, 지뢰, 수류탄 등과 소화기를 이용한 테러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사제폭탄이 급증하고 차량자폭 테러까지 사용, 대량피해를 유발
 - * 폭탄적재 구급차량의 바그다드 국제적십자사 사무소 자폭테러(10.27, 14명 사망·20여명 부상) 및 바그다드 경찰서 4개소 연쇄 자폭 테러 (10.27, 43명 사망·222명 부상) 발생 등
- 공격 양상면에서는 치안 위협 세력들이 상호 자체 결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해외 이슬람테러조직과 연계하여 조직화되고 있어 치안불안 상태가 심화
- 또한 높은 실업률(60%선)과 수도, 전기, 가스, 유류 등 생필품 공급의 부족으로 차량 절도, 수도관·송유관 파괴, 송전선 절취 등 민생범죄가 만연됨으로써 치안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수니삼각지대(바그다드-라마다-티크리트) 치안상황이 가장 심각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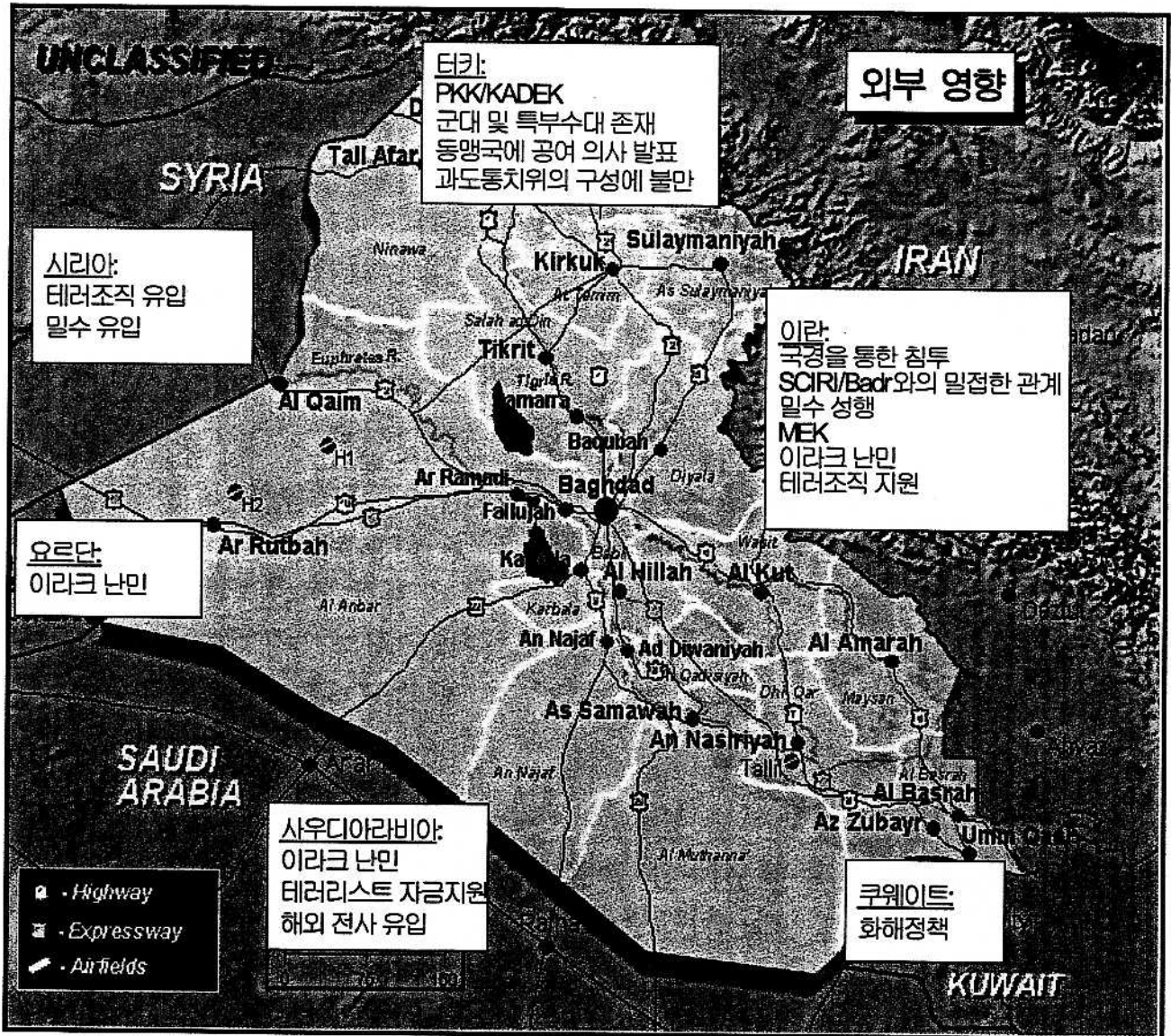
나. 치안불안 요인

□ 테러 위협세력

- ① **후세인 추종세력** : 후세인을 추종하는 바트당 조직원 및 군·경찰·민병대 잔당, 수니파 테러조직 등으로 주로 “수니 삼각지대”등 중부 수니파 지역에 집중
 - 후세인 추종세력의 규모는 2,000여명의 충성파중 약 200명이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11.2 동맹군사령부 브리핑)
 - 또한 보안 및 정보기관에 종사했던 잘 훈련된 사람들도 어려운 실직 생활로 인해 불만세력화 할 가능성 농후
- ② **이슬람 과격세력** : 수니파 테러조직의 일원인 “안사르 알 이슬람”조직은 동맹군대상 테러의 80%를 자신들이 자행했다고 주장
- ③ **해외 이슬람 테러세력** : 사우디, 아프간, 이란,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의 과격 이슬람세력이 이라크내 후세인 추종세력과 제휴, 테러공격을 자행
 - 이란의 극단주의자들이 Sulaymaniah, Al-Kut, Amarah(시아파 지역)를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
 - 사우디의 테러분자가 국경 인접도시인 Arar를 통해 잠입하며, 주로 재정지원을 담당
 - 시리아는 테러분자의 경유지(transit location of terrorist)로 이용되거나 이라크내 잠입 규모는 미상
 - 알 카에다 요원들, 파키스탄·이란을 거쳐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 지역으로 잠입, 현지의 “안사르 알 이슬람”과 합류

* 미 101 공정사단장 페트레우스 소장은 북부지역에 옛정권 관련자, 소규모로 입국한 일부 외국인, 범죄자들이 있으며 서로 다른 이들 그룹간에 전략적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언급(11.9)

○ 외부로부터의 영향



□ 무기회수 미흡 : 종전(5.1) 당시 무기반납 조치없이 이라크군(30-40여만명)을 해체

* 북부 아르빌지역 관할 미군당국, 시중 유출 무기 회수의 일환으로 각 가정당 소화기 1정 보유 허가제를 시행중

□ 종파(시아파·수니파) 및 종족(아랍·쿠르드·투르크만) 간의 갈등

○ IGC 구성원 25명중 시아파가 13명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과거 권력을 독점해 온 수니派는 5명에 불과,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反感도 고조

* 시아파 지도자 「알 하킴」 폭탄테러 사건(8.29) 이후 시아파와 수니파간 긴장이 지속

- 특히 이라크 신헌법 제정 관련, 종족 구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정치지도자의 계보 불분명으로 문제 소지 내재
 - 남부지역 「사드르」 시아파 지도자는 미군정하의 과도내각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10.25)
 - 각 종족별 상이한 기대로 인해 공통된 법적용을 통한 법치주의(rule of law)의 실현이 난망시

□ 민생 범죄가 만연

- 경제실상 : 60%를 상회하는 실업률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최근 일자리 제공 및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반미 시위 속발
 - * 실업자는 테러조직에 쉽게 포섭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실업 해소, 즉 직업 창출에 역점을 둘 필요
- 석방 죄수 재범 : 후세인이 방면(02.11월)한 15만여명의 죄수들이 주로 절도, 강간, 약탈, 납치 등을 자행

□ 일반주민들간에 반미 감정 점증

- 이라크 주민들은 점문검색시 등에서 미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시내활동 미군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 * 치안은 포괄적 개념(comprehensive)으로 정치·경제·사회·의식 등 모든 면을 포괄하는 것인 바, 미군의 장기주둔으로 치안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미군은 이라크인을 도울 수는 있어도 이라크인을 대신할 수는 없음")
- 10월말 실시한 미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6개월전과 비교 해방군이라는 인식은 줄고 점령군이라는 시각이 크게 증가
 - * 지난 4.9조사 당시보다 占領軍이라는 인식이 증가(43 → 67%)한 반면 解放軍으로 보는 응답은 급감(43 → 15%)
 - 이라크국민이 원하는 것은 "치안의 이라크화, 경제의 이라크화, 정치의 이라크화"이며, 이를 위한 원조와 지원을 희망
 - 미군은 "폭력과 힘"으로 통치하고 있으며 미국이 선택한 이라크 과도 통치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 18개주 지역 대표를 통한 합법적인 통치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

- 시아派 회교도들은 독재자 후세인이 제거된 대신 새로운 독재자 미군 (점령군)이 등장하였고 생활상태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인식

다. 최근 치안상황 통계 및 변화 추세

□ 공격 대상

- 공격행위는 주로 미군에 집중(91%)되어 있으나 미군외 파병 다국적군에 대한 공격(9%)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종전 선언(5.1) 이래 11.5 현재까지 미군 143명 사망, 동맹군 13명 사망

구 분		사 망			부 상
		계	전사	사고	
전쟁기간중 (3.19-4.30)	미 군	145	115	30	587
	동맹군	34	28	6	41
종전 선언후 (5.1-11.5)	미 군	254	143	111	1,203
	동맹군	22	13	9	35

○ 공격행위 발생 실태(빈도)

- 10월중 전지역 적대행위 903건 : 9월 482건 대비 2배 증가
- 공격 빈도는 8월 일일 16건에서 10월 들어 29건으로 급증
- 공격 장소는 바그다드를 비롯한 중북부 및 중서부지역에 집중(84%)

구분	계	북부	중북부	바그다드	중서부	중남부	남부
		101공정사	4보병사	1기갑사	82공정사	폴란드사	영국사
총계	2,536 (100%)	238 (9%)	958 (38%)	657 (26%)	499 (20%)	111 (4%)	73 (3%)
6월	196	11	62	82	23	13	5
7월	454	44	195	136	52	24	3
8월	501	71	178	124	79	24	25
9월	482	50	184	110	114	16	8
10월	903	62	339	205	231	34	32

□ 공격 수단

- 적대행위 수단은 초기 소화기 및 수류탄 공격에서 RPG, 박격포, 급조 폭탄 등 대량살상 무기화
- 급조폭발물 공격이 7-8월중에는 대부분 바그다드 일대에서 발생하였으나 점차 서부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으로 확산 추세

구분	계	일일평균	소화기	수류탄	RPG	급조폭탄	박격포	지뢰	기타
총계	2,536	17	661	95	537	655	430	35	123
6월	196	7	102	18	43	23	8	-	2
7월	454	16	144	23	131	65	80	1	10
8월	501	17	143	20	98	139	64	4	33
9월	482	19	109	15	100	140	95	5	18
10월	903	28	163	19	165	288	183	25	60

□ 지역별 사망자 현황

구분	계	북부	중북부	바그다드	중서부	중남부	남부
		101강습사	4보병사	1기갑사	82공정사	폴란드사	영국사
총계	123 (100%)	11 (9%)	25 (20%)	33 (27%)	33 (27%)	9 (7%)	12 (10%)
6월	12	0	0	3	2	1	6
7월	24	6	3	10	4	1	0
8월	19	0	4	5	2	2	6
9월	12	0	3	3	4	2	0
10월	33	1	14	10	5	3	0
11.1-11.5	23	4	1	2	16	0	0

□ 적대행위 변화추세

- 공격행위에 사용되는 무기가 정교화되고 파괴력이 강화되는 추세
 - 동 무기 출처는 이라크내 각지의 은닉무기고라서 발본색원이 어려움
- 석유시설 사보타지와 관련 고가치 핵심시설을 목표로 하는 공격 발생
 - * 10.20 북부 시니아 지역 송유관 폭파 테러 발생 등

○ 공격방식이 점차 정교해지고 공격세력간 상호조율이 강화되고 있는 등 조직화 추세

- 최초 공격 대상뿐 아니라 공격후 파견된 지원병력 및 피해자 수송헬기도 공격

라. 치안불안에 따른 이라크주재 국제기구 동향

○ UN, 바그다드 주재요원(15명) 전원 철수 결정(10.30 「오카베」 공보관)

* 북부 아르빌지역 구호활동요원 10명은 계속 잔류

○ 국제적십자사(ICRC)는 바그다드 발생 폭탄테러(10.27) 이후 外國人 직원 철수 등 대책마련에 부심

* 현재 이라크내에 35명의 외국인 직원과 800명의 이라크인 ICRC 직원이 활동

○ 「국경없는 의사회」는 바그다드內 활동요원(7명)을 축소하고, 獨逸도 급수 전문가 등 自國 구호요원 철수방안을 검토

○ 네덜란드는 바그다드 駐在 외교관 철수를 조치(10.26)했고, 포르투갈은 11월중 이라크에 派兵(130명)하려던 계획을 연기

* 우리 공관원(4명)도 KOICA와 KOTRA사무실로 분산(11.1) 소개

※ 治安 정세 불안으로 인해 이라크內 인도적 구호활동이 위축되고 각국의 派兵·經濟지원을 확보하려는 美國의 노력에 차질 우려

마. 우리 企業·公館의 被害 實態

□ 아국인에 대한 공격

○ 무장괴한이 코트라 사무소에 총기 난사후 도주(8.15)

○ 대우상사 사무소에 “이라크를 떠나라”는 내용의 협박편지 도착(8.19)

○ 바그다드주둔 미군, 코트라 사무소에 대한 테러첩보를 입수하고 탱크 2대를 배치했다가 2시간후 철수(9.27)

○ 駐이라크 공관원을 약 15분간 억류, 신원확인후 “이라크를 떠나라”고 경고한 후 석방(10.23)

○ 쿠웨이트 교민, 사업차 방문한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부근 고속도로 상에서 무장강도에 의해 2차례 피격(10.19, 10.28)

□ 강도 사건

- 대우상사 사무소에 4인조 무장강도가 침입, 경비원과 10여분간 총격전후 도주(8.9)
- 현대건설 지사장, 라마디-바그다드 도로에서 1,500불 피탈(8.19)
- IT&T社, 아파트주택 현관에서 차량을 피탈당하였으나 1,500불을 주고 회수(9.7)

바. 지역별 치안 상황

□ 중부지역(바그다드, 美 1기갑사단)

- 바그다드市에서는 미군 및 동맹군 협력자, 경찰요원, 新 이라크 정부인사에 대한 위협 및 살인·납치·절도 등 범죄행위 증가 추세
 - 소위 "저항의 날"(11.1-2)을 맞아 치누크 헬기가 공격을 받아 미군 15명이 사망(11.2)하는 등 전후 최대의 미군 사상자 발생
- 공격수단은 급조폭탄(정교하게 제작), 수류탄, 박격포, RPG 등 이용
 -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그다드 외곽에서나 있음직한 강도사건들이 현재는 바그다드 시내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밤에도 총소리, 폭탄 터지는 소리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지경
 - * 지난 5월 이전에는 시내 호텔 외부에 장벽이 없었으나 2중, 3중의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놓은 상태
- 고용인력 저하, 전기 및 급수 부족 등 지속시 反동맹군 정서 증가 예상
 - * 미군에 대한 민심이 점점 나빠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들이 시내를 활보하는 미군탱크에 대해 강한 거부감
 - * 시민들은 전쟁시 경찰이나 군을 케털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의 치안상황은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고 미군을 비난

□ 중북부지역(키르쿠크, 美 4보병사단)

- 대부분 수니파로서 친후세인 성향, 전직 바트당 요원 다수 활동지역으로 적대행동이 가장 빈번한 지역
- 동맹군 지원 민사작전 본부, 병원, 경찰서 및 개인상점도 공격
- 최근 원격 조종 급조폭탄에 의한 공격 행위 계속 증가

- 쿠르드족과 투르크 민족간 인종갈등 재연, 지역안정에 위협요소
- 동맹군의 강력한 후세인 추종세력 체포작전으로 테러 점차 감소 예상
-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저항세력들이 최근 공조 양상 조짐
- 시아파 지도자 '알 하킴'에 대한 차량 폭탄테러(8. 29) 이후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아파와 수니파간 충돌 가능성 상존

□ 북부지역(모술/아르빌 등, 美 101공정사단)

- 수니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에 비해 치안불안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으나 동맹군에 대한 공격은 지속적으로 발생
 - 미군기지 및 순찰 군인 등에 대한 공격이 주류
 - * 모술 서부지역 고속도로 순찰 미군 피격 부상(11.1), 드레아르지역 무장괴한 3명의 소화기 공격(11.1), 주마르지역 미군기지 박격포 피격(10.30) 등
 - 적대행위 목표도 순찰차량, 기지·기반시설, 곡물창고 등 다양
- 이란 및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테러집단의 유입과 이란인 정보수집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차후 조직적인 테러활동으로 발전 우려
 - 슬라이마니아 및 국경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 조짐
 - 이란계 조직이 동맹군 위협세력들의 국경지역 통과를 지원
- 쿠르드족과 투르크민족간의 인종갈등과 테러조직 "카데크" 및 "안사르 알 이슬람" 등이 북부지역 안정에 가장 큰 위협요인
 - 인종갈등 증폭시 터키의 개입 우려

□ 서부지역(라마디 등, 美 82공정사단)

- 주민 대부분 수니파 친후세인 성향으로 추종세력들 활동 중
- 시리아, 요르단 국경으로 테러세력 지속 잠입, 안정에 심각한 위협
- 동맹군 기지나 순찰차량에 제한적인 공격, 급조폭발물 사용 증가 추세

□ 중남부 및 남부지역(나자프/나시리아/바스라, 폴란드 및 영국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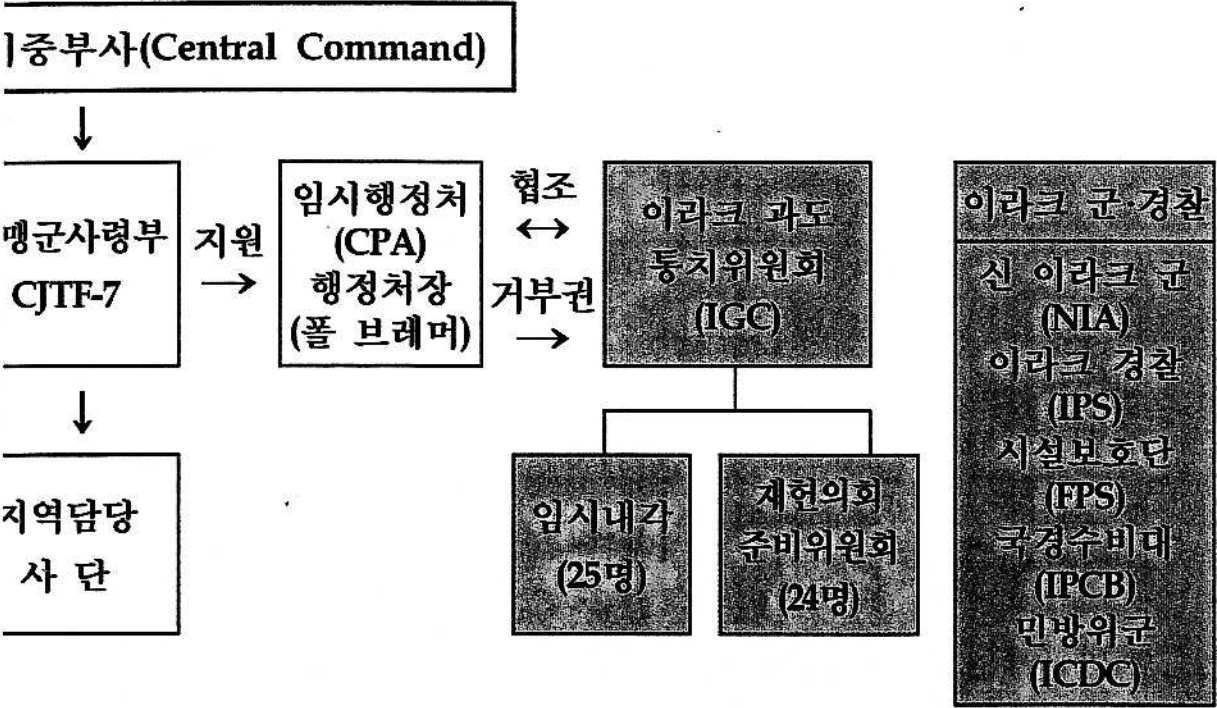
- 연료·전기부족, 실업 등 불만으로 산발적인 시위나 암시장 활동이 지역 안정을 저해
- 바스라 일대 송유관에서 원유 절취 밀매단 적발 등 여러 지역에서 전기, 연료, 급수 부족에 대한 항의시위 발생
- 최근 이 지역에 과거 이스라엘에 대해 51차례 자살폭탄 공격을 실시했던 '레바논 헤즈볼라'의 활동첩보 입수
- 남부 나시리아시는 최근들어 경찰 순찰차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시내 순찰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

사. 치안상황 평가

- 終戰 당시 무기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음에 따라 「후세인」 殘黨들이 장비를 비축하고 있어, 계속 테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과거 공화국수비대, 페다인 민병대 세력들은 무기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제폭탄 및 차량폭탄 등을 통한 원격 폭발 등 대형 테러 가능
- 이란·터키·시리아·요르단·사우디 등 국경을 통해 알 카에다, 과격 이슬람 세력 등이 잠입, 테러에 가담하고 있어 앞으로 국경지역 통제 문제가 치안 안정의 관건이 될 전망
 - 최근 미국은 외부 테러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이란·시리아 등에 협조 요청
- 戰後 민생 해결 지연에 따른 불만세력 등의 시위 강·절도 등도 잠재적 치안 불안 요인으로 대두
 - 전문가들은 終戰후 실직된 노동자·군인 등 실업자 구제를 치안 확보의 관건으로 지목

이라크 통치기구 동향

이라크 통치기구 구성도



이라크 정치일정

- 7단계 정치일정: ① 과도통치위원회 구성(7.13) → ② 제헌의회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8.11) → ③ 임시내각각료 임명(8.31) → ④ 제헌의회 설립 및 헌법초안 작성 → ⑤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채택(6개월 이내) → ⑥ 총선 → ⑦ 신정부 구성(2004년말)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는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및 임시행정처(CPA)와 협의하여 금년 12월 15일까지 이라크 신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일정 및 계획을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규정(유엔결의안 1511, 10.16)

나. 미측 조직

□ 동맹군사령부(CJTF-7 : 연합/합동 특수임무부대)

○ 임무

- 이라크내 안정화 및 지원작전 수행
- 잔존 적대세력에 대한 공세적인 작전 실시
- 이라크 재건부대 및 부대 재배치, 동맹군 전개지원
- 이라크 민간정부로 이양을 위한 안정된 환경조성

○ 작전개념 : 경계 및 안정화 작전(Security and Stabilization Operation)

구 분	경계(Security)작전	안정화(Stabilization)작전
개 념	· 군사위주 작전	· 민사위주 작전
목 적	· 적대세력 근절	· 민생안정 지원
활 동	· 후세인정권 추종세력 제거 · 반동맹군 세력 제압	· 주요 기간산업시설 복구 · 치안, 질서 유지

미군 및 동맹군 부대 ⇒ CPA, 동맹군 민사부대

○ 부대 편성(사령관 : 중장 산체스)

- 이라크 18개 행정구역을 4개로 구분, 사단별 책임지역 부여
 - 북부, 중동부, 중서부 지역 : 미군 3개사단
 - 중남부지역 : 폴란드 다국적 사단
 - 남동부지역 : 영국 다국적 사단

○ 부대교대('04년, 3월)

- CJTF-7 : 5군단에서 3군단으로 변경
- 101공중강습사단과 해병사단으로 교체예정
 - * 101강습사단 책임지역과 4사단 책임지역을 통합 추진

□ 동맹군 임시행정처(CPA) 설립

○ 설립

- 이라크 점령 이후 설립된 ORHA(Office of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를 6월 1일부로 CPA(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로 변경
- UN 안보리 결의 1483호(5.22)에 따라, 이라크 신정부 수립시까지 정치·경제체제 정비 등 이라크내 제반 권한 보유

○ 편성

- 행정처장 : 폴 브레머(Paul Bremer, 미국인)
- 국장 : 12명(미국인 7명, 영국인 1명, 폴란드 2명, 공석 2명)

직책	이름	국적
석유정책국장	필립 캐롤(Philip J Carroll)	美國
국내정치국장	라이언 카커(Ryan Crocker)	美國
경제개발국장	마렉 벨카(Marek Belka)	폴란드
기획예산국장	空席	
민간부문개발국장	토마스 폴리(Thomas C Foley)	美國
치안국장	월터 슬로콤(Walter B Slocombe)	美國
내무국장	空席	
USAID 담당국장	루이스 루크(Lewis Lucke)	美國
인프라담당국장	앤드류 비어파크(Anderw Bearpark)	英國
전략통신담당국장	개리 태처(Gary Thatcher)	美國
행정담당국장	스콧 카펜터(Scott Carpenter)	美國
국제조정위원회議長	앤드류 골레드지노위스키	폴란드

○ 권한 및 임무

- 民政移讓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治安·安保體制 구축 등 사전 整地 작업 추진
- 이라크인들에 의한 過渡統治體制를 갖추고, 민정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過渡統治委(IGC)를 구성(7.12)
- 경찰 등 치안요원과 군대 및 민방위대 창설 등을 통해 이라크인들에 의한 자체 治安 역량 강화를 지원
- 내년말까지 경찰·경비요원(현재 5萬 5,000명)을 10萬명, 軍병력도 20億弗을 투입, 4萬명(3개 사단)으로 각각 증원한다는 방침
- 향후 6개월간 保健문제 해결에 2億 1,000萬弗, 3년간 電氣복구에 130億弗, 水道시설 재건에 60億弗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 발표

○ 과도통치위원회와의 관계

- 합법적인 정부 수립시까지 CPA와 과도통치위원회가 권한을 공유하나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CPA가 최종 결정권 보유
- 과도통치위의 결정에 대해 CPA가 거부권 행사 가능

○ CJTF-7과의 관계

- CJTF-7은 CPA의 이라크 정치·경제 재건을 지원
- 사담 후세인 잔당 소탕, 테러 분자 색출 등 군사 작전과 함께 치안질서 유지, 민간단체 활동 지원, 정부기능 발휘 보장, 경제재건 지원 등 민사 작전을 실시
- CJTF-7 예하에 352 민사사령부를 운용하고, 지역담당사단에 1개 민사 여단을 배속하여, CPA의 지역협조단(RCG)과 협조

다. 이라크 조직

□ 과도통치위원회(IGC)

○ 구 성

- 諸종파를 대표하는 25명의 위원으로 발족
 - 시아派 13명, 수니派 5명, 쿠르드族 5명, 투르크멘 1명, 기독교도 1명
- 의장단 : 最高意思決定機構로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8.1)
 - 議長은 매월 윤번제(11월 의장 : 「탈라바니」 쿠르드애국동맹(PUK) 의장)

이름	직책	종파	비고
알 자파리	이슬람다와당 대표	시아파	카르발라 출생 모술대 약학과
알 하킴	이슬람혁명최고평의회(SCIRI) 의장	시아파	바키르 알하킴 前의장(8.29 나자프 테러로 사망)의 동생
알 울룸	성직자	시아파	91년부터 런던체류후 귀국
알라위	이라크민족화합(INA)사무총장	시아파	
찰라비	이라크국민회의(INC)대표	시아파	親美인사로 45년간 망명생활
압델 하미드	이라크 이슬람당 사무총장	수니파	키르쿠크 출생
파차치	독립민주운동 의장	수니파	UAE에서 32년간 망명
탈라바니	쿠르드애국동맹(PUK)의장	쿠르드	
바르자니	쿠르드민주당(KDP)의장	쿠르드	1979년부터 KDP 의장직 수행

○ 권한

- ① 임시각료임명권, 업무 감독권 및 불신임권 행사
- ② 중요 결정사항과 정책에 대해 CPA와 협의권
- ③ CPA에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및 인사권
- ④ 국제회의 이라크 대표 및 해외주재 이라크 공관의 대표 임명권
- ⑤ 2003년도 긴급예산안 수정권, 2004년도 예산안 작성 참여
- ⑥ 헌법기초위원 임명권 등

○ 주요 활동

- 24인으로 구성된 制憲議會 설립 準備委員會를 설치(8.11)
- 이라크內 政·宗派를 망라, 25명으로 구성된 임시내각 출범(9.3)

□ 임시내각(25명)

○ 구성

- 제 종파를 대표하는 25명의 위원과 동일 배경 및 숫자로 구성
- 總理는 IGC 議長이 대행
- 國防·宗教長官은 對美 安保의존 및 종파분쟁 소지 등을 고려, 폐지
- 과거 체제홍보의 전위 역할을 담당했던 公報長官職을 없애고 人權·環境·移民·技術·體育·靑少年部 등 6개 부서를 신설

政 派	姓 名	職 責
시아派(13)	누리 바드난(Nouri Badnan)	內務長官
	이브라힘 바흐르 울룸(Ibrahim Bahr al-ulloum)	石油長官
	아이디르 압바디(Aidir Abbadi)	通信長官
	알리 알라위(Ali Arawi)	通商長官
	마디 하피드(Madi Hafid)	計劃長官
	아라 압데사헤브 아르완(Alaa Abdessaheb al Alwan)	教育長官
	무함마드 자와디 주자이리(Muhamad Jawadi Zujairi)	文化長官
	압둘 아미르 압드 라히마(Abdul amir abud rahima)	農業長官
	알리 파이끄 가드반(Ali Faiq Gadban)	體育靑少年 長官
	카디르 압바쓰(Khadir Abas)	保健長官
	히삼 압들라흐만 찰라비(Hisham Abderrahman Chalabi)	法務長官
	싸미 아자라 알 마준(Sami Azara al-Majun)	勞動·社會 長官
	무함마드 자심 카디르(Muhammad Zassim Khadir)	移民長官
수니派(5)	카말 알 카일라니(Kamal al-Kailani)	財務長官
	이함 싸마라이(Iham Samarai)	電力長官
	라샤드 만단 오마르(Rashad Mandan Omar)	科學技術長官
	압둘 바샤르 투르키(Adul Basar Turki)	人權長官
	지아드 압데라작(Ziad Abderrazak)	高等教育長官
쿠르드族(5)	호시아르 알 지바리(Hoshiar al-zibari)	外交長官
	라띠프 라쉬드(Ratif Rashid)	水資源長官
	무함마드 타우피끄 라힘(Muhammad Tawufiq Rahim)	工業鑛物資源 長官
	압들 라흐만 싸디끄 카림(Abderrahman Sadik Karim)	環境長官
	나쓰린 무스타파 바르와리(Nasrin Mustafa al Barwari)	公共事業長官(女)
基督教(1)	바흐남 지야 부르쓰(Bahnam Jiya Bulos)	運輸長官
투르크族(1)	바얀 바끼르 슈라그(Bayan Baqir Sulagh)	住宅·建設 長官

○ 임시내각 동향

- 각료들은 내년 總選을 통한 新政府 구성시까지 CPA 지명 보좌관의 감독을 받아 過渡期的으로 國政을 수행하며 이를 IGC에 보고
- 임시정부 대표단이 아랍聯盟 外務長官 회의에 참석(9.9), 대표성을 인정
- 「카일라니」 財務長官, IMF·WB 연차총회(9.23-24)에서 外國人直接投資·금융·稅制 정비 요지의 市場經濟改革案을 발표
- 「울툼」 石油長官은 90년 걸프戰 이래 최초로 OPEC 회의에 공식 참석(9.23)함으로써 正會員國으로 복귀
- 이슬람회의기구(OIC) 頂上會議(10.16-18, 칼라룸푸르)에 대표단을 파견

□ 이라크 군·경찰 재건 동향

○ 개 요

- 미국은 일상적 치안 문제는 차츰 이라크인들에게 맡기고 미군은 후세인 정권 잔존세력 및 외국 테러분자 색출에 전념한다는 전략
- 이라크 자체의 치안 능력 강화를 위해, 신 이라크군/이라크 경찰/민병대/시설보호단/국경수비대 등 5개 분야에서 이라크 치안 능력 제고를 도모

○ 신 이라크군(New Iraqi Army)

- 임무 : 영토 수호를 위한 군사적 임무
 - 규모 : 27개 대대(3개 사단)
 - * 05년 3분기까지 4만명
 - 전개
 - 이라크군 1개대대(750)가 기본 훈련을 받고 배치(10.3)
 - * Vinyl社를 통해 이라크軍 750명을 훈련
 - 3개 여단 모슬 배치 예정(내년 3-4월중)
- ※ 훈련: 바카바에 훈련소 설립

○ 이라크 경찰(IPS; Iraqi Police Service)

- 임무: 법집행(law enforcement)
- 규모: 75,000명(현재 60,419명 활동중, 10월말까지 65,753명 배치)
 - 3주간 단기 훈련과정 이수후 배치
- * 미국은 경찰 및 용병 기업으로 유명한 '다인코프'(DYNCORP)와 9월 계약 체결
- ※ 조만간 우방국들에 이라크 경찰력 증강계획 및 이에 필요한 지원 내역(교관, 자문관, 장비목록 등)을 통보한다는 방침
- 8주간의 정규 훈련을 받을 3,000명의 훈련생, 교관 요원 1,000명을 수용, 훈련시키기 위해 일부 국가들과 협상중

○ 이라크 국경수비대(Iraqi Border & Customs Police)

- 임무: 국경수비, 순찰, 세관 등
- 규모: 11,778명(현재 6,531명 훈련 중)

○ 시설보호단(FPS; Facilities Protection Service)

- 임무: 정부 및 민간 건물, 시설, 요인 보호
- 1,144개 장소에 추진 22,674명(현재 1,106개 장소 21,813명 배치)

○ 이라크 민방위군(ICDC; Iraqi Civil Defense Corps)

- 임무: 통역, 정보, 고정지점 보안, 운전, 구호, 호송 등
 - 석유 수송파이프, 발전소 등 사회간접시설 보호 및 병력 호송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이라크 각 도시에 대한 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인수예정
- 규모: 26개 대대 필요(내년 1월까지 21 대대, 3월까지 26 대대 훈련 완료)
 - 4,115명 훈련 중, 4,676명 작전 중